

老人的 性格適應要因과 生活滿足度에 관한 研究

- A Study of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연구조교 김 현 진
전임강사 이 귀 옥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 Hyun-Jin Kim

Full-Time Instructor : Kwee-Ock Lee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The active-intergration, The dependent-passivity, The failing-overabundance, The self-negativity).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1)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s can be predated by 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2) Life Satisfaction can be predated by demogaphic variables and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3) Each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s will be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For the test of hypotheses,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the randomly selected 332 persons over age 60 in Pusan. Questionnaires consist of 4 parts. These are demographic part, family environment part,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 part, and life satisfaction part.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Case, Percentage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primary,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 is decided by personal problem. But, this personality adaptation factor of the aged is affected by family environment. Particularly,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frequent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solidary.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비중은 상당히 크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다각적인 면에서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얻어온 성격특성에 따라 노후 생활에서 얻는 만족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령단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개개인의 성격적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만족한 삶”이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취할때 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그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김태현; 1986). 따라서 노인의 “만족한 삶” 즉 생활만족도는 일차적으로 개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한국의 노인 특히 가족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 가족은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대면적 관계에서 보더라도 노년기 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만족한 삶을 위한 노후적응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 및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며 이러한 성격적응은 노인을 둘러싼 제 환경에 따라 적응양식을 달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개 노인의 부양형태나 가정내 역할 및 지위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으며 사회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즉, 만족한 삶을 위한 개 개인의 성격적응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성격은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견해주는 것으로 개인의 모든 행동에 관계한다. Shanin은 특히 성격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강조하며 어떠한 행동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 변인을 요인분석에 의해서 인지하고자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성격은 근원특성(source trait)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성격적응을 요인별로 묶어 분석하므로써 각 개인의 다양한 행동상의 적응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성격적응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둘째,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셋째, 각각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생활적응을 위한 성격적응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성격특성 및 적응

1) 노인의 성격특성

한 인간의 성격은 그의 삶의 역사를 형성하는 행동상의 일화(behaviour episodes) 또는 삶의 역사의 어떤 주요한 양상을 통해 나타내는 일관성과 규칙성에 의해 정의된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성격의 특징들은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화적인 특성들 보다는 그 개인의 심리 행동적 특성들과 관계된다(김정운역; 1990). 사람은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취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의 습관적인 반응양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라 성격특성도 변한다(woadruff & Birren; 1983; 윤진; 1984).

한 개인의 성격특성은 전 생애를 통하여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나 다른 한편,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성격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령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윤진;

1986). 특히 노인은 반응에 있어서 높은 확신수준 (Level of confidence)이 요청되므로 오랜시간이 필요하다(Borwinick, J., Brinley, J.F., & Robbin, J.S ; 1958). 노인은 경직성이 강하며 문제해결에 있어서 속도 보다는 정확성을 더 중요시하고 대체로 우울증이 증가한다. 또한 노인은 신체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자아상이 달라지고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무사하게 처리하려 한다. 이는 늙어감에 따라 자아 에너지의 투입이 줄어들고(Rosen & Neugarten ; 1964) 자아기능의 양식(ego. Style)이 변해 일처리를 수동적 혹은 요행에 맡기는 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Gutmun 1964 ; 윤진 1986).

Erikson은 인간의 전 생애를 8단계중 마지막 8단계를 노년기라 하며 자아통합감과 절망이라는 위기를 제시하였다(Erikson, E.H ; 1963). 그는 인생말년의 조화로운 성격발달의 핵심을 자아통합이나 절망이나로 알려진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유가효, 정옥분, 조복희 ; 1991).

Robert Peck(1968)은 성인후기 동안의 심리적 성장을 “자아분화인가 또는 직업역할물두인가,” “신체 초월인가 또는 신체물두인가,” “자아초월인가 또는 자아물두인가”의 중요한 심리적 적응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의 의미의 상실대신 만족하며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있는 자아속성의 다양성을 확립함으로써 은퇴에서 오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전제조건이다.

Jung(1968)은 인생의 전반기는 외부세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인생의 후반기는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내면적, 주관적인 세계에 몰두해야만 하며 의식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무의식의 경험을 인식하며 자신의 내부에서 성격특성을 발견하는 시기로 보았다(丁鍾鏞, 李祥雨 공역 ; 1991). 노인은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새로이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생활관심이 타인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된다고 한다(Hunlock, E. ; 1980).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쇠퇴, 사회적 지위나 위치의 변화등 매우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받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자

가 일정한 유형의 적응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김경신 ; 1983).

2) 노인의 성격적응 유형

노화과정의 적응양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한 인구는 Reichard, Livson & Peterson의 분류로 그들은 ① 성숙형(The matured) ② 은둔형(The rocking-chair man) ③ 무장형(The armored) ④ 분노형(The argry man) ⑤ 자학형(The self-haters)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노인의 성격적응을 설명해 냈다.

Neugarten은 8가지 성격적응패턴을 발견하였는데 ① 재구성자형(The reorganizer) ② 초점형(The focused) ③ 유리형(The disengaged) ④ 계속형(The holding-on) ⑤ 위축형(The constricted) ⑥ 구원 요청형(The succorance-seeker) ⑦ 무감각형(The apathetic) ⑧ 조직 와해형(The disorganized)이 그것이다.

여기에 Shanana은 다른 여러 연구자들이 설정한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4가지로 성격유형을 분류하였다(이영은 ; 1990, 재인용). ① 적극적 통합형(The Active Integrated Coper) :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함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자녀와 배우자를 무척 소중히 생각하는 유형이다(Shanana, J. ; 1985 ; 이영은 ; 1990). 리리카아드의 “성숙형”과 뉴가르텐의 “재구성자형”을 포함한 개념이다. ② 의존적 수동형(The dependent Passive Coper) :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회피로서 대응하고 그 난관으로부터 좌절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보수적인 행동과 사고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반응양식을 나타낸다. 뉴가르텐(1968)의 “구원 요청형”과 유사하다. ③ 실패 과정형(The failing Overcoper) : 외롭고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불만족으로 쉽게 화를 내며 성격이 급하고 동료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형으로 리리카아드의 “분노형”, 뉴가르텐과 그의 동료들(1968)의 “위축형”과 같은 개념이다. ④ 자기 부정형(The self-Negating Undercoper) : 우울하고 고독한 생활을 소극적으로 받아 들이며 정부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아주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적이며 조심스럽고 대인관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기주장을 하는 대신에 사회규범을 잘 지

키는 형이다. Havighurst(1968)의 무감각형의 개념을 의미한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로서(김명자 : 1983) 개인의 기대와 기대치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Medley : 1975).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그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은 물론 생활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인 것이다(최혜경 : 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 자신의 주어진 특성과 그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노인의 적응양식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장기간의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유지되어온 초기 단계로부터의 연속적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Kalish : 1975 : Medley : 1976). 따라서 노인이 갖는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인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다(한입섭 : 1987). 성공적 노화는 성공적 적응의 의미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노인은 일을 하는데 그의 목적(현실적인)들을 추구하고 해결하며, 행복한 기분이나 만족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열성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만족스러운 적응은 일생을 통해서 행동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변화들을 요구하는 것이다(D.B. Bromley 저. 김정운역 : 1990).

3. 선행연구

1) 노인의 성격적응에 관한연구

Reichard와 그의 동료들(1962)은 노화와 성격의 연구에서 다섯가지 성격유형을 발견하고 성숙형, 은둔형 및 무장형은 비교적 잘 적응한 경우이고 분노형과 자학형은 부적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하고 분노형과 자학형의 적응형태는 노년기에 와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한 성격형성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유형이라고 하였다(윤진 ; 재인용 : 1987).

Neugarten의 성인생활연구(1968)에서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은 8가지로 노년기의 특유한 성격적응패턴을 발견하였는데 재구성자형, 초점형, 유리형, 계속형은 적응을 잘하는 유형이며 위축형, 구원요청형, 무감각형, 조직와해형은 부적응의 성격유형임을 밝혔다(윤진 ; 재인용 : 1987).

이영은(1990)은 Shanani의 분류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격적응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적극적 통합형과 의존적 수동형은 적응의 형태이고, 실패 과장형, 자기 부정형은 부적응의 형태로 밝혔다. 그러나 이영은은 그의 논문에서 성격을 유형화한 후 그 구체적인 빈도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성격적응을 유형화과정에서 "성격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유형이상에서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료분석처리에서 제외시켰으나 어떤 경우에는 1점의 차이로 성격유형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와 같이 노인의 다양한 측면의 반응양식을 하나의 유형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그러한 성격적응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성격적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① 성 별

최근 들어 노인을 남자나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sex)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P.W. Blumstein & Pepper schwartz).

노인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의하면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 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reitzer, E. and E. Snyder ; 1974). 여자 노인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역할 상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여자들은 자녀가 독립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어 어머니로서의 역할 감소 내지는 역할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심한 갈등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된다(박충선 : 1980).

또한, Liang(1982)과 Edwards & Klemmack(1973)은 성별과 생활만족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사회 경제적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았다(Edwards, J.N & Klemmack : 1973 ; Liang, J. : 1982).

② 연령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이나 친구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Cutler, N.E.; 1979). 그러나 Palmore & Kivett(1979)가 실시한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③ 교육정도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있는 생활을 즐겁게 되므로 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Kalish; 1979; Markides & Martin; 1979). 노년기의 적응력을 높이는 변인으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적응력은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lish, R.A.; 1979).

④ 종교상대

종교활동의 참여도가 높으면 생활만족도가 높고 특히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종교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다(Markides, K S & M.Martin; 1979). 박미령과(1970)과 맹희재(1985)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외감을 적게 느끼며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⑤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게 되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Klemmack & Roff; 198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한다(Kalish; 1975; Chatfield; 1977; Larson; 1973).

⑥ 건강 상태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므로 건강은 노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를 좌우하게 된다(최혜경; 1984). 건강과 노인의 생활만족도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Jeffers, Lowenthal, Palmore와 Luikart 그리고 Medley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 연구들은 노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생활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김중숙; 1984).

⑦ 결혼상태

배우자의 죽음은 그 어느 생활사건보다 커다란 위

기를 가져오며 노인에게는 특히 생활의 일대의 전환을 가져다 준다(김수현; 1987). 배우자의 죽음은 특히 자원의 손실, 곧 경제적 수입의 감소와 사회관계망의 감소를 가져오며 특히 여자 노인의 경우 빈곤의 이유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것이므로 배우자 관계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⑧ 자녀동거형태

서구사회에서는 동거로 인하여 자녀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Troll; 1972; Kivett & Learner; 198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효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고, 노인들 자신도 노년기에는 당연히 자녀들 특히 장남과 동거하게 될거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므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권규식; 1973; 김행자; 1974; 김태현; 1981; 김수현; 1987; 박충선; 1990).

⑨ 자녀유대관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와의 결속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상호간의 자원교환 형태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자녀와의 접촉 빈도에 따른 객관적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자녀와 얼마나 가까이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유대관계도 중요하다(박충선; 1990).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깊은 대인관계는 바로 자녀와의 유대관계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자녀(68%)로 밝혀 졌다. Quinn(1983)에 의하면, 노년기의 부모는 사회활동이 감소함으로써 자녀와 더불어 더욱 깊은 애정적 유대관계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진다.

⑩ 가족주의 가치관

노인들은 가족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자녀와의 관계, 자식의 부양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기 마련이다. 그에 반하여 자녀들은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임으로써 자기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

치관을 가질수록 자녀들과의 세대차이 및 갈등을 겪게 될 확률이 높고, 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eelbach & Sauer; 1977; 박충선; 1991; 재인용).

3) 노인의 성격적응유형과 생활만족도의 연구

이영은(1990)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내지역의 남, 녀노인 198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9문항, 성격유형을 위한 J. Shanani의 23문항,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Havighurst의 LSI-A의 12문항으로 조사 하였다.

이영은의 성격적응과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적극적 통합형의 성격적응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의존적 수동형, 실패과장형, 자기 부정형의 순으로, 그리고 적극적 통합형 및 의존적 수동형의 성격적응은 정적상관으로 생활 적응으로 실패 과장형 및 자기 부정형의 성격적응은 생활의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인의 성격적응과 생활만족도간의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Hilgard, E.R. & Atkinson, R.C.; 1970; 이영은; 1990), 노인의 성격적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만의 연구에 비해 극히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은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 노후생활에서 생활적응에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환경적 변인인 자녀유대관계와 가족주의 가치관을 첨가해서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를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가족환경적 변인은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1.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은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가족환경적 변인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2. 인구통계학적 가족환경적 변인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3. 노인의 성격적응요인 각각은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남자 노인 151명과 여자 노인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부산 시내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단, 본 연구의 성질상 양로원과 같은 시설 노인은 제외시켰다.

3. 척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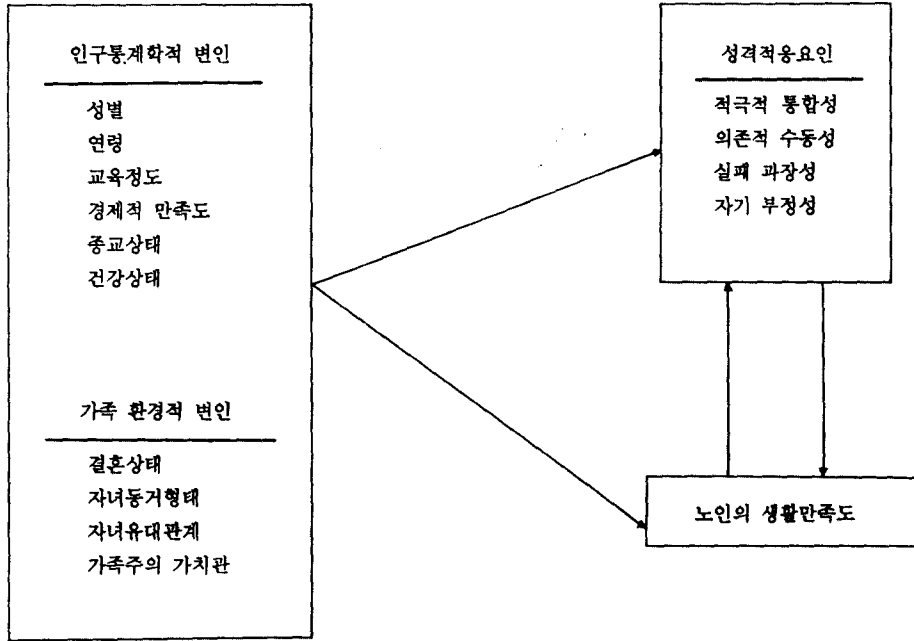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 즉, 설문지는 1차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다시 수정, 작성하여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 가족 환경적 문항, 성격적응에 관한 문항, 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구통계학적 문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성별에서 남자 노인에 0점 여자 노인에 1점을 주었고, 교육정도는 교육 단계별로 측정하였으며, 종교 상태는 있다가 0점 없다가 1점으로 2분화시켰으며, 경제적 만족도는 노인 자신의 경제 생활에 대한 만족을 묻는 하나의 문항으로 응답범주는 1점에서 4점까지이다. 건강상태는 최혜경(1984)의 분류를 근거로 하였으며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2) 가족 환경적 문항

“가족”이란 노후의 행복과 “성공적 노화”를 좌우하는 기본요건의 하나로 노인의 가족환경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 자녀동거형태, 자녀유대관계, 가족



(그림 1) 연구모형

주의 가치관등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① 결혼상태-배우자 유, 무로 측정하여 유에 0점 무에 1점을 주었다. ② 자녀동거형태-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상황으로 측정하였다. ③ 자녀유대관계-조사 대상자의 심리적 변수로서 자녀유대관계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자녀유대관계의 측정을 위해서 Bengson과 Culter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혜경(1985)이 유대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입증한 5개 문항과 예비조사에서 신뢰성이 높았던 두 문항을 척도로 사용했다. 이 문항의 측정기준은 3점 리커트형 척도(3 Point Likert-Type)로서, 긍정적 문항은 '그렇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을 주었고, 부정적 문항은 반대로 '아니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1점 '그렇다'에 0점을 주었다. 이 문항의 신뢰도는 기우반분법(Split-Half Method)에 의하여 $r=.838$ 로 나타났다. ④ 가족주의 가치관-개인 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가(家)의식, 친자 관계, 부부 관계를 고려한 김종숙(1986)의 분류를 근거로 예비조사에서 변별력이 없는 문항은 제외시키고 최종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형 척도(5 Point Likert-

Type)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나타내며 이 문항의 신뢰도는 기우반분법(Split-Half Method)에 의하여 $r=.860$ 으로 나타났다.

3) 성격적응요인에 관한 문항

노인 성격적응요인을 파악하고자 이영은(1990)의 논문에서 사용한 J. Shanani의 성격적응유형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다'에 3점 '아니다'에 1점 '잘 모르겠다'에 2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4)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

윤진의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중 감정부분의 4개 문항(긍정적 문항 2개와 부정적 문항 2개)과 경험부분의 6개 문항(긍정적 문항 3개와 부정적 문항 3개) 등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윤진의 생활만족도 척도 20개의 문항 중 예비조사에서 변별력이 없는 것을 제외시킨 것이다. 긍정적 문항은 '그렇다'에 2점, '아니다'에 0점 '그저 그렇다'에 1점의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반대로 부정적 문항

은 '아니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1점 '그렇다'에 0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이 문항의 기우반분법(Split-Half Method)에 의한 신뢰도는 $r=.879$ 이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설문지 작성은 개별 면접에 의해 연구자와 훈련된 4명의 조사원이 직접 기록작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1년 6월 20일 부터 25일까지(6일간) 50명의 조사 대상자를 예비조사 한 후 7월 5일 부터 7월 18일까지(14일간) 350명의 남, 녀 노인을 대상으로 본 조사하였다. 조사된 설문지 중 332부를 본 연구의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PSS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단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보았음).

〈연구문제 1〉은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2〉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적용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빈도(명)	백분율(%)	변 인	집 단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51	45.5	건강상태	아주나쁘다	19	5.7
	여	181	54.5		나쁜편이다	62	18.7
	계	332	100.0		그저그렇다	165	49.7
			아주건강하다		86	25.9	
연 령	60~64	62	18.7	계	332	100.0	
	65~69	73	22.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5	46.7
	70~74	89	26.8		배우자 없음	177	53.3
	75~79	61	18.4		계	332	100.0
	80 이상	47	14.2	자녀동거 형 태	혼 자 서	18	5.4
	계	332	100.0		우리부부	55	16.6
교육정도	무 학	119	35.8		장남부부	151	45.5
	서 당	38	11.4		장남의 아들부부	40	12.0
	국 민 학 교	85	25.6		딸 부 부	21	6.3
	중 학 교	40	12.0		미혼자녀들	36	10.8
	고 등 학 교	33	9.9		기 타	11	3.3
	대 학교 이상	17	5.1		계	332	100.0
	계	332	100.0	자녀유대 관 계	상	54	16.3
경제적 만 족 도	모자란다	65	19.6		중	204	61.4
	그저그렇다	151	45.5		하	74	22.3
	충분하다	116	34.9	계	332	100.0	
	계	332	100.0	가족주의 가 치 관	근 대 적	53	16.0
종교상태	종교있음	229	69.0		개 화 적	214	64.5
	종교없음	103	31.0		전 통 적	65	19.5
	계	332	100.0		계	332	100.0

〈연구문제 3〉은 노인의 각 성격적용요인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실태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서 나타난 일반적 실태는 〈표 1〉과 같다(〈표 1〉 참조).

조사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45.5%인 151명, 여자 54.5%인 181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조금더 높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74세가 26.8%인 89명, 65~69세가 22.0%인 73명, 60~64세가 18.7%인 62명, 75세~79세가 18.4%인 61명, 그리고 80세 이상이 14.2%인 47명으로 분포 되었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35.8%인 119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학교 25.6%인 85명, 중학교 12.0%인 40명, 서당 11.4%인 38명, 고등학교 9.9%인 33명, 마지막으로 대학교 이상 5.1%인 17명의 순으로 분포 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수입만족에 관한 질문으로 45.5%인 151명이 그저 그렇다, 34.9%인 116명이 충분하다. 19.6%인 65명이 모자란다고 응답을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종교유무에 관한 것으로 69%인 229명의 노인이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31%인 103명의 노인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표에서와 같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49.7%인 165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5.9%인 86명의 노인이 '아주 건강하다'로, 18.7%인 62명의 노인이 '나쁘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5.7%인 19명의 소수노인이 '아주 나쁘다'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가족 환경적 변인들의 일반적 실태로서 배우자 유무에 관한 문항으로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46.7%인 155명,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53.3%인 177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자녀동거형태는 조사 대상자의 노인이 노부부만, 12%인 40명의 노인은 장남의 아들부부와 동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10.8%인 36명의 노인이 미혼자녀들과, 5.4%인 18명의 노인이 혼자서, 마지막으로 기타가 3.

3%인 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자녀유대관계의 점수는 최고 14점, 최저 0점이었으며, 평균 9.274, 표준편차 2.863이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근대적 16%, 개화적 64.5%, 전통적 19.5%이었다.

2. 자료의 분석결과

1) 노인의 성격적용요인에 관한 문항분석

요인분석하기위한 23문항의 변별도를 검정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표 2〉 참조). 최대점수 3점중 평균 1점이하로 나타난 문항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23문항 모두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문항분석결과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1	1.74699	0.91438
2	2.12952	0.93186
3	2.59639	0.68191
4	1.92470	0.90503
5	1.71687	0.86101
6	2.90663	0.36503
7	2.62952	0.93965
8	1.62349	0.83347
9	2.09639	0.88101
10	2.36446	0.87410
11	1.38253	0.74643
12	2.48494	0.79827
13	2.83133	0.44162
14	2.05120	0.80806
15	2.57530	0.63891
16	2.14458	0.92148
17	2.84639	0.48283
18	1.96988	0.94836
19	1.54217	0.79729
20	1.62349	0.81143
21	1.91867	0.90451
22	1.84639	0.93467
23	2.71687	0.60558

2) 요인분석후 성격적응요인의 결과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직교회전하여 처리하였더니 4개의 요인으로 구별되었다. 요인 1은 적극적 통합성이라 명명하였으며 eigenvalue 2.74792로 나왔고 전체변량의 24.4%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요인 2는 의존적 수동성으로 명명하였으며 eigenvalue 2.16883이고 전체변량의 36.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실패 과장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eigenvalue 1.54223이고 전체변량의 19.2%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자기 부정요인으로 eigenvalue 1.35664이고 전체변량의 20.2%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 결과는 <표 3>과 같다(<표 3> 참조).

이상의 요인 분석의 결과에 나타난 요인 4가지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와 종속변수(성격적응요인,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의 강도와 독립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채서일, 김범중;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노년기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은 회귀분석에 이용하여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성격적응요인별 결과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5. 나는 점잖고 성실하다	.67825	-.00873	.02905	-.11705
3. 나는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67287	.16354	-.03877	.04452
7.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고 정중하다	.65546	.10973	-.06324	.05644
13. 나는 약속을 지킨다	.62247	-.15067	.7980	-.13559
12. 나는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42923	.06517	-.04988	-.02572
22. 나는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38338	-.23510	.00506	.09606
21. 나는 자신감이 없다	-.00011	.62467	.14104	.04878
5.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 난관을 회피한다	.02936	.47720	.07659	.21565
1. 나는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01524	.47499	-.07290	.01549
8. 나는 의존적이다	-.12364	.44908	.04350	.22838
18. 나는 현재 일어나는 일만 생각한다	.08815	.41573	-.06208	-.11432
2. 나는 보수적이다	-.10801	.36547	-.03463	.01611
20. 요즈음 나는 우울하다	-.05641	.33036	.69176	-.04709
19.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22581	.25654	.68716	-.10231
16.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는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낀다	-.05835	.14095	.50457	.47335
11. 나는 요즈음 힘든 일을 하고 있다	-.01009	-.14431	.41126	-.08304
10. 나는 돈에 많은 중요성을 둔다	.03559	-.14501	.35447	-.02500
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15373	-.13992	.23051	.12349
14. 나는 일반상식을 많이 알고 있다	.38272	-.09485	.16863	-.52004
6. 나는 내 자녀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28427	.12153	-.21044	.47634
23.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겁다	.17638	-.36470	.02549	.45270
9. 나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20646	-.05593	.01783	-.47281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거리감을 둘때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13447	.19629	.42228	.42899
eigenvalue	2.74792	2.16883	1.54233	1.35664
전체변량(%)	24.4%	36.4%	19.2%	20.2%
공통변량(%)	11.9%	9.4%	6.7%	5.9%

3. 가설검정의 결과

1) 노인의 성격적용요인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연구가설 1의 검정을 위해 각 요인별 성격적용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적극적 통합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적극적 통합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표 4> 참조).

적극적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종교상태, 경제적 만족도, 연령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9.6%였다. 가족 환경적 변인으로는 결혼상태, 자녀유대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7.4%였다. 특히, 결혼상태는 10.3%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여자 노인보다는 남자 노인에게서, 종교가 있을 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유대관계가 강할 수록 적극적 통합성을 높게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성별, 종교상태, 경제적 만족도, 연령, 그리고 가족 환경적 변인중 결혼상태와 자녀유대관계에서 지지되었다.

2) 의존적 수동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의존적 수동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은 <표 5>와 같다(<표 5> 참조).

의존적 수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연령과 건강상태였으며, 두 변인의 설명력은 7.2%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존적 수동성을 높게 나타내었다. 가족 환경적 변인으로는 자녀유대관계, 가족주의 가치관, 결혼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변인의 설명력은 11.8%였다. 즉, 자녀유대관계가 약할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존적 수동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연령과 건강상태에서 그리고 가족 환경적 변인중에서는 자녀유대관계, 가족주의 가치관 및 결혼상태에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3) 실패 과장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실패 과장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표 6> 참조).

실패 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 및 연령이었으며, 이들 세변인의 설명력은 8.7%였다. 즉,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 환경적 변인으로는

<표 4> 적극적 통합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적극적 통합성							
순 위	인구통계학적 변인 (1)				가족 환경적 변인 (2)				
	변 인	b	beta	t	변 인	b	beta	t	
1	성 별	-0.472	-0.236	-4.143***	결혼상태	-0.589	-0.294	-5.840***	
2	종교상태	-0.337	-0.156	-2.772**	자녀유대관계	0.928	0.266	5.274**	
3	경제적 만족도	0.183	0.132	2.508*					
4	연 령	-0.098	-0.128	-2.416*					
Multiple R		: 0.309				Multiple R		: 0.417	
R square		: 0.096				R square		: 0.174	
Standard Error		: 0.957				Standard Error		: 0.912	
Constant		: 0.251				Constant		: -0.547	

* p<0.05 ** p<0.01 *** p<0.001

〈표 5〉 의존적 수동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의존적 수동성								
순 위	인구통계학적 변인 (1)				가족 환경적 변인 (2)			
	변 인	b	beta	t	변 인	b	beta	t
1	연 령	0.146	0.191	3.571***	자녀유대관계	-0.091	-0.259	-4.967***
2	건강상태	-0.203	-0.167	-3.120**	가족주의가치관	0.021	0.139	2.665**
3					결혼상태	0.273	0.136	2.597**
Multiple R : 0.268					Multiple R : 0.343			
R square : 0.072					R square : 0.118			
Standard Error : 0.967					Standard Error : 0.944			
Constant : 0.181					Constant : -0.081			

* p<0.05 ** p<0.01 *** p<0.001

〈표 6〉 실패 과정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실패 과정성								
순 위	인구통계학적 변인 (1)				가족 환경적 변인 (2)			
	변 인	b	beta	t	변 인	b	beta	t
1	건강상태	-0.246	-0.202	-3.797***	자녀유대관계	-0.770	-0.220	-4.098***
2	경제적 만족도	-0.228	-0.165	-3.114**				
3	연 령	-0.102	-0.113	-2.504*				
Multiple R : 0.294					Multiple R : 0.220			
R square : 0.087					R square : 0.048			
Standard Error : 0.960					Standard Error : 0.977			
Constant : 1.513					Constant : 0.713			

* p<0.05 ** p<0.01 *** p<0.001

자녀유대관계(p<0.001, beta=-0.220)만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그 설명력은 4.8%이었으며, 자녀유대관계가 약할수록 실패 과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 연령이 그리고 가족 환경적 변인중 자녀유대관계가 연구가설 1을 지지하였다.

4) 자기 부정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자기 부정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표 7〉참조).

자기 부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였으며, 이들 세변인의 설명력은 12.2%를 나타내었다. 가족 환경적 변인중에는 자기 부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다. 즉, 노인의 자기 부정성은 남자 노인 보다는 여자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성별, 연령, 교육정도만이 연구가설 1을 지지하였고 가족 환경적 변인은 연구가설 1을 모두 부정하였다.

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족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표 8>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 종교상태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4%로 나타났다. 가족 환경적 변인으로는 자녀유대관계와 결혼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7.4%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자녀유대관계는 15.1%의 높은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 수록, 자녀유대관계가 높을 수록, 배

우자가 생존해 있을 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연구가설 2를 지지하였다.

6)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표 9> 참조).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최고 점수는 18점이었고 최저 1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0.922, 표준편차 4.637이었다.

Pearson의 적률상관에 의하면 적극적 통합성($p < 0.001$)은 정적상관을 보여쓰며 의존적 수동성($p < 0.001$) 및 실패 과장성($p < 0.001$)은 부적상관을 나타내

<표 7> 자기 부정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자기 부정성								
순 위	인구통계학적 변인 (1)				가족 환경적 변인 (2)			
	변 인	b	beta	t	변 인	b	beta	t
1	성 별	0.524	0.261	4.680***				
2	연 령	-0.151	-0.198	-3.562***				
3	교육정도	-0.910	-0.141	-2.380*				
Multiple R : 0.349					Multiple R :			
R square : 0.122					R square :			
Standard Error : 0.941					Standard Error :			
Constant : 0.389					Constant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 노년기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분석

노년기 생활만족도								
순 위	인구통계학적 변인 (1)				가족 환경적 변인 (2)			
	변 인	b	beta	t	변 인	b	beta	t
1	건강상태	1.464	0.259	5.005***	자녀유대관계	0.5305	0.350	4.538***
2	경제적 만족도	1.226	0.191	3.690**	결혼상태	-1.566	-0.157	-2.042*
3	종교상태	-1.328	-0.132	-2.568*				
Multiple R : 0.353					Multiple R : 0.414			
R square : 0.124					R square : 0.171			
Standard Error : 4.35					Standard Error : 4.22			
Constant : 4.362					Constant : 4.705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9)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N=332)

성격적응요인	적극적 통합성	의존적 수동성	실패 과장성	자기 부정성
Pearson r	0.2684***	-0.2486**	-0.3876***	-0.0384

* p<0.05 ** p<0.01 *** p<0.001

있고 자기 부정성은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없었다. 적극적 통합성은 노후생활의 적응을 나타내었으며 의존적 수동성과 실패 과장성은 부적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기 부정성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적극적 통합성과 의존적 수동성 및 실패 과장성에서 지지되었으며, 자기 부정성에서는 부정되었다.

4. 결과요약 및 논의

1) 가설 1의 결과

(1) 노인의 적극적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성별, 종교상태, 경제적 만족도, 연령이었으며, 가족 환경적 변인중에서는 결혼상태와 자녀유대관계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2) 노인의 의존적 수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연령과 건강상태였으며, 가족 환경적 변인중에서는 자녀유대관계, 가족주의 가치관, 결혼상태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의존적 수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노인의 실패 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중에서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 연령이었으며, 가족 환경적 변인중에서는 자녀유대관계만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4) 노인의 자기 부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중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였으며, 가족 환경적 변인으로는 노인의 자기 부정성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상의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만족도 및 자녀유대관계와 결혼상태는 정서적 안정의 기본이 되는 요인으로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가설 2의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 종교상태로 나타났으며, 가족 환경적 변인으로는 자녀유대관계와 결혼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최혜경(1984)의 연구에서와 일치하였다. 즉, 노인 스스로 생각한 주관적 만족도로서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모든 생활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만족도 역시 주관적 만족도로서 최혜경(1984)과 김종숙(1986)의 연구와 일치되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에서도 의미하듯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일수록 매사에 긍정적으로 여겨 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숙; 1986).

종교상태는 김종숙(1986)의 연구와 불일치 되었으며 이영은(1990), 박춘선(1990)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종교는 정서적 만족도에 영향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활동영역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활동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생활만족도에 관계된다(서병숙; 1989). 김태현(1986)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발달과업성취도가 높으며 생활만족도도 높다.

자녀유대관계는 선행연구(김종숙; 1986, 최혜경; 1984)와 일치하였다. 자녀유대관계는 노인의 생활에 중요한 관심사로서 특히, 대화는 노부모-자녀의 질적유대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매체임을 알 수 있다(한동희; 1990). 또한 김종숙(198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만족도와 건강이 자녀유대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동거형태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거여부보다는 심리적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가설 3의 결과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적극적 통합성만이 정적 상관을 보여줌으로서 적극적 통합의 성격적응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생활적응을 나타내었고, 의존적 수동성과 실패 과장성은 부적상관으로 이 두가지의 성격적응요인은 생활만족도가 낮은 부적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기 부정성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는 상관이 없는 성격적응요인으로 밝혀졌다.

적극적 통합성은 생활적응 즉,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적응으로 이영은(1990)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이영은의 연구에서 의존적 수동성이 생활적응을 나타내는 반면, 본 연구의 결과 의존적 수동성과 실패 과장성은 생활부적응의 성격적응요인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의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화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인 무능력에 따른 자녀들에 대한 의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자녀동거형태와는 관계없이 자녀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수록 적극적 통합성 및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부정성은 이영은(1990)의 연구에서는 생활부적응의 성격유형으로 유형화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는 상관없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활 부적응의 성격적응으로서 Reichard가 제시한 분노형과 자학형의 적응형태처럼 노년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성격형성과정의 결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중 적극적 통합성은 남자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종교를 갖고 있을때,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수록, 자녀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높게 나타난다.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중 의존적 수동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유대관계가

약할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중 실패 과장성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정성의 성격적응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가족환경적 변인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성격특성과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그리고 자녀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나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될 때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유대관계 및 배우자 생존유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고 생활적응을 도모하는 성격적응요인은 적극적 통합성이며 의존적 수동성과 실패 과장성은 부적응으로 생활만족도를 낮게하는 성격적응요인이다. 또한 자기 부정성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격적응요인이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노인의 성격적응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나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가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자녀유대관계, 결혼상태, 자녀동거형태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 유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집안의 대소사 및 불만스러운 일에 대하여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정내 노인 스스로가 그들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잘 키웠다는 느낌과 아직도 훌륭한 부모임을 깨닫게 하는 것 등이 중요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자녀와 유대강화를 위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가족내 노인 구성원의 부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다양한 변화와 신체적 쇠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성격적응요인인 적극적 통합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심

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 자신이 자녀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건장한 성격적응을 도모해야 하고 노인 스스로가 자기조정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격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자료수집 및 근거이론의 뒷받침이 충분치 못하였다. 둘째, 노인의 성격적응에 관련된 일반화된 척도가 부족하여 서구의 성격유형척도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성격적응요인으로 노인의 성격적응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문항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성격적응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집합주거 단지의 노인정 및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폭넓은 계층의 분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을 비롯한 보다 폭넓은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김경신, 「인성특질에 따른 노년기의 적응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나호, 1983.
- 2) 김명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호, 1982.
- 3) 김범중·채서일, 「SPSS / PC를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1987.
- 4) 김수현, 「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5) 김정운역, 「노인 심리학」, 성운사, 1990, p.236 - D.B.Bromiey저
- 6) 김종숙,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 7) 정종진·이상우 공역, 「인간성격의 이해」, 중앙적성출판사, 1991, p.166~170.
- 8)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여자대학 연구논문집 제23권, 1986.
- 9) 맹희재, 「제가 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5.
- 10) 박미령, 「가족내 노인의 역할과 소위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8.
- 11) 박충선,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여성개발 여성연구 가을호, 1990.
- 12) 서병숙,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1989.
- 13) 유가효·정옥분·조복희, 「인간발달」 교문사, 1991, 489.
- 14) 윤 진, 「노년기의 성격 및 적응특성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1980.
- 15) 윤 진,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초록집, 1982.
- 16) 윤 진,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6.
- 17) 윤 진·조석미,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NO.1, 1980.
- 18) 이상노, 「성격과 행동의 지도」, 중앙적성출판사, 1986, 18.
- 19) 이상노·이관용 공역, 「성격의이론」, 중앙적성출판사, 1980.
- 20) 이영은,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 21) 장인협,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22) 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족 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 2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국 노인의 생활의식구조」, 1984.
- 24) 한동희,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 25) 한임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7.
- 26) Botwinick, J., Brinley, J.F., & Robbin, J.S.,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ceptual difficulty and

- stimulus exposure time on age differences in speed and accuracy of response", *Gerontologia*, 2, 1958, 1-10.
- 27) Cuffer, N.E., "Age Variations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 1979.
- 28) Edwards, J.N. & D.L. Klemmack,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1973, 497-502.
- 29)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 Norton, 1963.
- 30) Hurlock, E., "Perelopmental Psychology(5th ed.)", New York : McGraw-Hill, 1980.
- 31) Kalish, R.Q., "Late adulthood :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 Cole Publishing Co. 1975.
- 32) Klemmac, D.L. & L.L.Roff,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 1984, 756-758.
- 33) Liang, J.,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7, 1982, 100-108.
- 34) Markides, K.S. & M. Martin,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1979, 86-93.
- 35) Neugarten et al,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In B.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173-177.
- 36) Palmore & Kivett,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 1979, 311-316.
- 37) Peck, R.C.,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Middle Age and Aging" :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Ed. by B.L. Neugarte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38) P.W. Blumstein & Pepper Schwartz, "Bisexuality : Some Social Psychological Issues", Stkolnick and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S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132-144.
- 39) Quinn, W.H.,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83, 57-73.
- 40) Reichard, S., Livson, F., and Peterson, P.G., 1962.
- 41) Shanan, J., "Personality Types and Culture in later Adulthood", Jhon A. Meachak(Ed.), New York : Karger, 1985.
- 42) Spreitzer, E. and E. Snyder, "Correlates of Life Satisfs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1974, 454-458.
- 43) Walters, R.H., & Brown, M. "Studies of reinforcemnt of aggression" : III. Transfer of response to end interpersonal situation, *Child Development*, 1963.
- 44) Woodruff & Birren pp.119-121(1983) : 윤 진, 1984, 178-179.